

# 11~15세기 중반 기사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

조현진\* · 정홍숙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논문은 11세기에서 15세기 중반의 기사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중세 군사문화와 복식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사는 봉건제와 십자군 전쟁이라는 독특한 시대적 배경하에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중세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계급으로서 말을 탄 전사를 말한다.

기사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 기사도는 여성에 대한 정중함과 헌신과 전사로서의 용맹과 용기를 의미하였다. 이것은 중세 동안 기사들의 행동규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신사도로 발전하였다.

둘째, 마상시합은 개인간의 전투인 Joust와 집단전투인 Tourney로 나누어지는데 전투훈련에서 스포츠경기로 발전한 것이다. 마상시합이 대중화함으로써 마상전용 갑옷이 출현하였으며, 문장이 장식된 슈르코와 방패를 착용함으로써 상대와 구별하여 관람객들에게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사의 착용물은 갑옷, 방패, 무기가 있다. 특히 갑옷은 사슬갑옷과 판금갑옷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갑옷은 중세복식 중에서 푸르푸앵, 슈르코, 코다르디 등 복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넷째, 문장은 전투중에 피아(피아) 식별수단으로 단순히 적과의 구별뿐만 아니라, 지휘관인 기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부하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에서 유래하여 가문과 족

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고 세습되었다.

중세복식에 나타난 기사문화를 의복과 장신구, 신발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의복에서는 십자군 병사가 호신용으로 입었던 누빈 옷인 지퐁이 변형·발달된 푸르푸앵과, 강한 햇빛과 눈, 비, 먼지로부터 갑옷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 위에 입었던 슈르코가 있다. 그 외에 코다르디와 호즈 등이 있다.

장신구로는 지갑과 거들 등이 있는데 지갑은 십자군 전쟁 기간 중에 성직자들이 병사들에게 순례자의 지팡이와 십자가와 함께 지갑을 준 것과 값진 물건을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생겨나 널리 유행했다.

신발은 고딕 건축물의 뾰족한 감각이 그대로 반영된 크래코즈(crakows)와 고딕 시대 갑옷의 철화(鐵靴)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기사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의복에 있어서는 십자군 전쟁과 갑옷, 문장이라는 군사문화가 밀리터리 룩(military-look)의 형태로 중세전반에 걸쳐 유행하였고, 장신구는 십자군 전쟁의 결과 동양 문물의 유입과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보다 화려해졌다. 신발은 고딕 시대의 신발을 보면 기사의 철화(鐵靴)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사문화는 복식 뿐만 아니라 중세 정치·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 수 있었다.